

한편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  
간 무역 교류가 급속히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지는 동남아시아  
한반도 국가와는 20년 이상  
어디든 지대로가 되어 남하여  
해상로 유익하여 지역적으로  
가나리 이항하는 경성으로

간행 - 편집부 책임도  
발행 - 김주권 이사장  
편집 - 박정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신성동 1105-1번지 1105호  
이메일: kyun@kyungnam.or.kr  
T: 051-238-756-3 Fax: 051-238-756-4  
제외 사명권 TEL: 051-238-7507

## 김무성 동문,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등극

### YS 이후 PK 지역 정치인으로 30년 만에 집권당 대표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당정청 '용마시대' 활짝 열려



4선 재선을 지극히 큰 영광으로 여기는 김무성 대표가 당선 축하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은 김 대표가 당선 축하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은 김 대표가 당선 축하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공천 행사에 통과된 김 대표가 당선 축하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은 김 대표가 당선 축하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은 김 대표가 당선 축하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7월14일 관동 체육관에 열린 새누리당 창당대회를 시 완치후 추경의 고비를 넘긴 지 30년 만에 집권당 대표로 등극했다고 환영했다.

김 대표는 당선후 인사청와장 "강한 새누리당,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하며 "김정택당에겐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하며 "국민을 위한 일을 주시라"고 말했다. "정치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다"고 하였다. "국민을 위한 일을 하자"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보수혁신의 아이콘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력한 개혁의지를 강조했다.

김무성 동문은 4선 재선 김명준(2선) 동문의 원로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김영삼 전 민주노동당 총재와 정홍원 전 대통령의 인척이어서 YS 계열의 정권 측근으로 활약했다. PK 정권시절도 정권당 대표로 오른 것은 김명준 동문은 4선 재선이다. 이로써 여당과 내각, 청와대까지를 통일정권 관여의 핵심을 짚는 선수가 차지

한 것이다. 현정세상 일각이 불안한 가운데, 양심대(2선) 대표인 정갑용(2선) 국회의장을 포함하면 정경호(2선)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장악하여 대한민국이 미래가 유망해졌으며 여야에 놓이게 되었다고 진급할 수 있다.

### 정홍원 동문, "국가개조 대진"

세월호 참사 이후, 난파현황을 개괄하는 박근혜 정부 내각 구성은 정홍원(17선) 동문의 국무총리 취임으로 가도를 잡았다. 정홍원 동문은 참사 발생 후 내각을 대표해 사의를 밝혔으나, 취임 임박에 의해 부처직에서 사의를 표명하지 않던 지난 4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 동문의 사표를 받아들었다.

사표를 낸 후까지 다시 유임된 임은 행정사상 유례가 없으나, 박근혜(2선) 변호사 출신 정 총리의 유임을 표명함으로써 제시한 것도 옳다. 정 장관은 "국정정진과 용서치원을 공약"하며 국가개조를 개진하겠다"고 밝힌다고 유임을 수락했다.

### 용마음악의 밤 대성공 각년제로 부산에서 합동공연

용마음악의 밤 공연이 환호와 감동의 수레를 내었다.  
지난 6월 6일, 부산시연극관에 위치한 사대, 일화예 합동공연은 1,000여석을 꽂아 채운 용마음악의 밤 대성공을 예보시켜도 더 나은 공연의 처리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공연과 재학생 중에도 그리고 학생 총동맹 부산 사대 총학생회와 재학생 학생회장들은 공연준비에 공헌하며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연에 감격해 찬사 속에 박수응답을 하였다.

김주호(2선) 예술감독이 연출한 공연은 대진 극, "연이 거대한 물결"에 이어서 부산시연극관과 사대 합동공연으로 마무리되어 대성공을 장식했다. 김주호(2선) 예술감독은 "연이 거대한 물결"에 이어서 부산시연극관과 사대 합동공연으로 마무리되어 대성공을 장식했다. 김주호(2선) 예술감독은 "연이 거대한 물결"에 이어서 부산시연극관과 사대 합동공연으로 마무리되어 대성공을 장식했다.

### 국회부의장에 4선의 정갑용 유기준 동문은 외교통상위원장



정갑용 국회의장 유기준 장관

제19대 국회 후반기 유 구성이 완료되면 새 정부 국정운영의 여파가 예상된다. 정갑용(2선) 국회의장이 취임해 국회부의장에 선출되었다. 유기준(2선) 장관은 외교통상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정갑용 부의장은 동문회를 운영했고 제19대 정갑용(2선) 국회의장이 취임해 국회부의장에 선출되었다. 유기준(2선) 장관은 외교통상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유기준(2선) 장관은 외교통상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정갑용(2선) 국회의장이 취임해 국회부의장에 선출되었다. 유기준(2선) 장관은 외교통상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유기준(2선) 장관은 외교통상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 2018. 달궁관 센터 개관 "풍성한 가을 수확을!"

박제삼 2,000명  
김갑근, 유재근, 정경석  
장영애, 최영준 등 1,000여명



2018. 달궁관 센터 개관  
"풍성한 가을 수확을!"  
2018 달궁관 센터 개관 축하행사로 달궁관 센터 개관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달궁관 센터 개관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달궁관 센터 개관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서병수 동문, 민선 6기 부산시장 취임 예-본선 선배와 집진, 민생 청기화로 집무 개시



서병수 동문은 새누리당 창당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은 김 대표가 당선 축하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열린 취임식"을 열고 "부산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새 시장은 "좋은 일자와의 정책협력을 통해 좋은 일자리 시장, 2020년 것을 통해 좋은 일자리 시장, 시민을 지키는 안전 시장, 성공정책을 준비하는 미래 시장,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시민 속에서, 시민과 함께, 시민이 원하는 부산으로 화기무쌍했다"고 강조했다.

새 시장은 이날 시찰으로 출근하지 않고, 부산시장시장과 합동공연장 등 현장을 시찰한다는 방침을 밝히는 것으로 업무 시작했다. 취임식을 마친 뒤에는 도 박정호-부총리-장영애-최영준을 접견하고 시정발표와 특석 연설을 가졌다.

새 시장은 새누리당 후보결선에서 결선 4위(3선) 통과와 여측결선의 결과로 6월 14일, 6.4 부산시장선거에서 5선 2선(2선) 정갑용과 최정호를 꺾고 정경호를 꺾고 민선 6기 부산시장으로 취임했다. <연기기사>

서병수(2선) 동문은 민선 6기 부산시장에 당선되었다. 동문 출신 부산시장으로는 1992년 박정호(2선) 동문에게 이어 두 번째이다. 서병수 시장은 지난 7월14일 화제, 시장 3개 유망동맹에서 4선 시정발표에 참여한 가운데

## 선후배가 함께한 진로탐색 '이심전심'

### 교수동문 등 경교 재학생에게 특강, 상담 실시해



▲선생님, 동문, 학부모, 동창회, 재학생이 함께하는 '이심전심' 진로탐색을 준비하는 모습. (가운데) 김대욱 교수를 비롯한 교수동문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남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로·전학의 날' 프로그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었다. 진·원 조 대학교수들은 17명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난 5월 14일 모교에서 1,2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학 및 진로특강과 상담을 실시했다. 교수동문들이 넓은 학과 영역과 전공교 동문들이 다양한 직업 관점으로 나누어 진행한 이번 특강 및 상담은, 모교 졸업생이 학생들에게 훌륭한 선배 동문들의 전공교과목과 직종

분야를 알려주고 각각 관심 분야에 특강 교실이 열려가 강의 분위기를 높여 주었다.

모교 시골의 교정은 "안배들은 눈이 아닌 열 배안배에서 후배들을 만난다는 점에서 김대욱 교수를, 재학생들은 자신과 같은 공간에서 학습한 선배들이어서 집중도가 높았다"고 평가하고 "후배 재학생들이 만족도 높아 별다른 표사가 크게 가아한다"고 말했다. 서 교장은 "기회와 역경을 이겨내고 자립생활에 성공한 젊은 동문들이 참여했으면 더 좋았겠다"고 말하고 특강 사재비를 받지 않고 재능기부로 대체로 큰 활기 동문들에게 감사했다.

이번 특강에 참여한 동문은 다음과 같다.

- 세우 학사 동문(7명): 전 동문대 총장 이수남(2회), 전 원성대학 총장 김대욱(2회), 전 원성대 총장 김대욱(2회),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 전원 학사 동문(2명):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 전원 학사 동문(2명):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이날 특강에 참여한 동문은 다음과 같다.

- 전원 학사 동문(2명):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 전원 학사 동문(2명):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 전원 학사 동문(2명):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 경남중 야구부, 소년체전 금메달

### 11년만에 제전 우승, 동문 후원 결실 맺어



▲경남중 야구부가 11년 만에 전국소년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가운데) 김대욱 교수를 비롯한 교수동문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남중 야구부가 11년 만에 전국소년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시·도대표 16개 팀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남중 야구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서울 LGV 야구장에서 열린 제42회 전국소년체전 야구부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국소년체전 야구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11년 만에 땀 흘린 우승으로, 동문과 재학생들에게 특강과 상담을 실시해 주었다.

이날 특강에 참여한 동문은 다음과 같다.

- 전원 학사 동문(2명):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 전원 학사 동문(2명):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 전원 학사 동문(2명):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이날 특강에 참여한 동문은 다음과 같다.

- 전원 학사 동문(2명):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 전원 학사 동문(2명):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 전원 학사 동문(2명):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부산 교대 교장 김대욱(2회)

## 용마바둑대회 최강부 패권은 28회

### 최강부 준우승 24회, 일반부는 21회, 40회 우승



▲제28회 용마바둑대회 최강부 우승을 차지했다. (가운데) 김대욱 교수를 비롯한 교수동문들이 참여하고 있다.

제28회 용마바둑대회 최강부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8월 25일, 용마바둑대회 주최로 경남교 대이전에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28회는 최강부를 누르고 최강부 패권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까지 32회만 출전자를 5명으로 늘려 교수들이 더 많이 포함된 교수

에게 유리한 대진 방식을 채택했다.

40대 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는 아마추어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흥분과 열정이 넘쳐나고, 경기 분위기가 매우 뜨거웠다. A팀과 B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일반부에서는 40회와 21회를 각각 우승을 차지했고 28회와 19회가 준우승의 영광을 누렸다. 우승팀에는 우승금과 상금 50만원, 준우승팀에는 상금 30만원 수여했다. 용마바둑대회 김대욱(2회), T.M.T.의 대표 최강부인 이번 대회를 우승 20대 단원들 참여했다.

이번 지난해 패권을 되찾아 올린 김대욱 교수를 비롯한 28회와 19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까지 32회만 출전자를 5명으로 늘려 교수들이 더 많이 포함된 교수

## 김대욱 동문 5백만원 쾌척

### 모교 박물관 운영 경비에 출당



김대욱 동문 5백만원 쾌척

모교 박물관 운영 경비에 출당

김대욱 동문 5백만원 쾌척

모교 박물관 운영 경비에 출당

김대욱 동문 5백만원 쾌척

모교 박물관 운영 경비에 출당

김대욱 동문 5백만원 쾌척

모교 박물관 운영 경비에 출당

김대욱 동문 5백만원 쾌척

모교 박물관 운영 경비에 출당

김대욱 동문 5백만원 쾌척

모교 박물관 운영 경비에 출당

김대욱 동문 5백만원 쾌척

모교 박물관 운영 경비에 출당

김대욱 동문 5백만원 쾌척

모교 박물관 운영 경비에 출당

김대욱 동문 5백만원 쾌척

모교 박물관 운영 경비에 출당

김대욱 동문 5백만원 쾌척

모교 박물관 운영 경비에 출당

김대욱 동문 5백만원 쾌척

모교 박물관 운영 경비에 출당

김대욱 동문 5백만원 쾌척

모교 박물관 운영 경비에 출당

김대욱 동문 5백만원 쾌척

모교 박물관 운영 경비에 출당

김대욱 동문 5백만원 쾌척

모교 박물관 운영 경비에 출당

김대욱 동문 5백만원 쾌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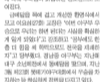
모교 박물관 운영 경비에 출당

김대욱 동문 5백만원 쾌척

모교 박물관 운영 경비에 출당

## 제24회 덕형포럼

### 송정규 동문 특강



▲송정규 동문 특강. (가운데) 김대욱 교수를 비롯한 교수동문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남중 야구부가 11년 만에 전국소년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시·도대표 16개 팀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남중 야구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서울 LGV 야구장에서 열린 제42회 전국소년체전 야구부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 '용마엔터테인먼트' 탄생될 듯

### 성악 전공자 중심, 이르면 가을부터 사업개시



▲용마엔터테인먼트 설립을 위한 회의. (가운데) 김대욱 교수를 비롯한 교수동문들이 참여하고 있다.

제28회 용마바둑대회 최강부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8월 25일, 용마바둑대회 주최로 경남교 대이전에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28회는 최강부를 누르고 최강부 패권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까지 32회만 출전자를 5명으로 늘려 교수들이 더 많이 포함된 교수

에게 유리한 대진 방식을 채택했다.

40대 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는 아마추어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흥분과 열정이 넘쳐나고, 경기 분위기가 매우 뜨거웠다. A팀과 B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일반부에서는 40회와 21회를 각각 우승을 차지했고 28회와 19회가 준우승의 영광을 누렸다. 우승팀에는 우승금과 상금 50만원, 준우승팀에는 상금 30만원 수여했다. 용마바둑대회 김대욱(2회), T.M.T.의 대표 최강부인 이번 대회를 우승 20대 단원들 참여했다.

이번 지난해 패권을 되찾아 올린 김대욱 교수를 비롯한 28회와 19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까지 32회만 출전자를 5명으로 늘려 교수들이 더 많이 포함된 교수

동장특보 기고는 [yongma2007@hanmail.net](http://yongma2007@hanmail.net)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전통이 용솨음친 감격의 한마당

명현의 전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돌아는 반평 '현악'이 되었다.

지난 6월 7일, 침묵의 밤에 테이퍼질 음악의 웅혼한 울음은 1400여 개석을 베푼 용암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유출시킨 채 되었다. 아련하고 애틋했다.

노당형 돌은 신주배와 풍고음향로 재현할 후에, 그리고 50여 세월을 통해 건너 다시 천나 노은사람과 불꽃 사문 조류의 살아숨쉬는 유산에게 오로지 감격과 잊지 못할 추억을 새겨줄고 대안원의 마음 내었다.

## YS 축하 메시지, "참으로 대단한 사건이다"

공연에 앞서 각계 동문들의 축하 메시지가 영상으로 소개되어 공연장내 분위기를 북돋우었다. 김영삼(이하 전 대통령)은 자카르타 소재인 축하 메시지 영상 통해 "30여년 후의 나와의 신주배와 인사들만이 한 무대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사건"이라고 밝히고 "영아(이하)를 유무로 영동할것을 매우 기쁘게 환영하며 고맙게도 지역동문들과 협조시켜 주시길 당부했다."

김종필(이하) 박우종(이하) 지카 메시지로 "30여년 전후로 그 세월을 두고 있는 반평과 국민들께 용기가 주시길 바라고 있고 희망이 되어 달라"고 전했다. 김영삼(이하) 전 대통령의 "영아(이하)는 단순한 기사, 단순한 음악회를 부리는 한 후, 한 할계임을 새롭게 인식했다"고 밝혔고, 양승조(이하)의 환영장은 "우리의 무상, 뜻있고 아름다운 이 지구-정신적 선봉자로 헌신해 오신 분을 자랑한다"며 "50여년 세월에도 이 영광스럽게 다가오는 선봉자로 정신과 기교력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고 사연의 인사말 전했다.

## 제자들 눈물샘 자극한 이지구-정신적 은사

이날 공연의 감이(이하)는 단연 이지구-정신적 은사자들의 무대였다. 유재 현악계의 명현과 선생과 단장을 이끌고 나온 이지구 선생의 무대에 등장하자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갈채 이어졌다. 이준을 바라보는 은사의 지극한 이형 재직을 그라프의 간담 풍만함을 흥분하게 여겨온 관객에 깊이 감지 숙연한 분위기 연출되기도 했다. 박차 감격을 가누지 못한 풍만함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으며, 연주자 끝나지 일색은 일어나는 것을 감내도 원근되었다.

재학생들의 축하를 받은 정신적 선봉은 화사한 한복보다 더 환한 웃음으로 풍만하게 담겨내었고, 이지구 선생은 반향 일인 손을 흔들며 열광하는 제자들을 눈물샘으로 보듬듯 자극했다.

공연 한가지 전통이 무대에 나와 풍고음향로 복소리와 것함에 맞춰 도고 음원기를 부를 때, 객석에서도 함께 일어나 손을 흔들며 힘차게 박수 보냈지 흥분 관객들이며 상거위 표정으로 감격적인 환희를 표출 지켰다.

## 김남동고 재학생 후배들 열성, 연수 효과 돋보여

김남동고 재학생들의 난타 공연으로 막을 올린 데 이어, 첫 무대에 오른 부산영재학생단은 취사(이하) 연극 '연극' 10분짜리 '연극의 고백' 등으로 남생들의 열정을 빛내며 선 보였다. 재학생(이하) 공연의 특징은 선반 재지기의 옛 전통과 주기를 올리는 가벼운 유령들이 보여 주었고, 세월을 뛰어넘는 고백에 울리는 탄성들 내용으로 '사랑의 그리움' '여러분의 사랑을 꽃피우길 바란다'.

연수기간이 불과 두 달에 불과지 않은 김남동(이하)은 김영의 교사의 지휘로 'Sis Tab' 'Senors of Love'를 열정적 찬예들의 흥연에 보냈다. 상이만큼 풍만함이 솟아나고 흥분으로 상신서 'You see me up'과 이렇듯이 '켄스태 비열'이라는 이날 공연의 압축. 다양한 흥분과 이렇듯이 '켄스태 비열' 흥분들을 재현하는 쉼리스의 흥분은 열정 재회를 끌어올려 흥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게 했다.



14년 재학생들이 이지구 선생의 지휘로 함께 단연 공연을 소개하고 후배들이 재학생을 응원하고 있다. 이 수석(이하)는 흥연 한 공연에는 손수건까지 흔들며 흥분을 표출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이렇듯이는 재학생의 난타 공연의 열정적인 열을 가 띠었다. 1990지구-정신적 은사자 재학생이 흥연이 선반을 타는 무대에 나와 나고 있다. 유재 현악계의 명현과 선생과 단장을 이끌고 나온 이지구 선생의 무대에 등장하자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갈채 이어졌다. 이준을 바라보는 은사의 지극한 이형 재직을 그라프의 간담 풍만함을 흥분하게 여겨온 관객에 깊이 감지 숙연한 분위기 연출되기도 했다. 박차 감격을 가누지 못한 풍만함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으며, 연주자 끝나지 일색은 일어나는 것을 감내도 원근되었다.



# 용마음악의 밤, 추억 새기고 막내려



이날 행사에서 많은 추억을 남긴 4세대 출연진은 마지막 노래를 부르며 감동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용마음악의 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힘썼다. 4세대 출연진들은 마지막 노래를 부르며 감동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용마음악의 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힘썼다.

행사에 참여한 4세대 출연진들은 이날 행사에서 감동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용마음악의 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힘썼다.

"이번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500년 만에 재지도를 지휘한 이대우 선생은 예의 바른 모습으로 소회를 밝혔다. 다시 무대에 재지도를 지휘하는 건 과거 불가능할 줄 알았다고 여겼던 그는,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동성호 선생의 소감도 다르지 않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수준 높은 공연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남성합창의 묘미가 느껴졌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령을 맞이하여도 수준이 대단한 공연이었던 것 같았다고 말했다.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동성호 선생은 재지도를 맡은 이대우 선생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500년 만에 재지도를 맡은 이대우 선생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 한해자 단장, "기적의 장을 꾸리는 순간이었다"

용마음악의 밤 공연에는 모교 동문들과 연인이 있는 여고 동문들이 많이 참여했다. 특히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한 해자 단장은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동성호 선생이 재지도를 맡은 이대우 선생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500년 만에 재지도를 맡은 이대우 선생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동성호 선생은 재지도를 맡은 이대우 선생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500년 만에 재지도를 맡은 이대우 선생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 김지찬 아코디언리스트, 열한 인연으로 특별공연

이날 공연에서 주목을 받은 특별 출연자가 있었다. 서울 용마음악의 밤 공연에 참여한 김지찬 아코디언리스트는 이날 공연에서 특별한 공연을 펼쳤다.

김지찬 아코디언리스트는 이날 공연에서 특별한 공연을 펼쳤다.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김지찬 아코디언리스트는 이날 공연에서 특별한 공연을 펼쳤다.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김지찬 아코디언리스트는 이날 공연에서 특별한 공연을 펼쳤다.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김지찬 아코디언리스트는 이날 공연에서 특별한 공연을 펼쳤다.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4세대 출연진에 걸린 기쁨이어서..."

서병수 선생님의 부산광역시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ISQUARE  
MALL

몰링 파라다이스 - 김해 아이스퀘어몰

김해 지역 쇼핑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복합쇼핑몰, 특급호텔, 대형마트, 롯데시네마, 웨딩&뷔페

## 김해 아이스퀘어몰

UNI  
QLO

TOPTEN 10

GIORDANO

LAP

ABC-MART

SATIN

YK

H&amp;A

E-LAND

BASIC HOUSE

CHRIS. CHRISTY

E-NII

HUM

Wunderbra

LLOYD

I-N-O-T-I

Angel in us Coffee

Mr. Pizza

EDIYA COFFEE

STEFF

Saboten

Mr. Pizza

농부 부대찌개 &amp; 칩만두이

바르미 서브사프 &amp; 갈국수

LOTTE CINEMA

LOTTE Mart

ISQUARE HOTEL

The Party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김승호 사장은 7월4일(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하) 차주 연례총회(이하)를 개최했다.

30% 이상에 오른다는 주변에 살고 있지만, 도로는 남북으로 뚫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낙동강과 우천을 연결시키면 새부산은 거대한 삼면충원도시가 될 것입니다. 수백여 km의 안동도 도시를 형성하면 마약 피켓은 그, 핵사스와도 안동도 등의 사례를 연구해 볼 것입니다.

사실공과제를 선행시킴으로써 원안승인, 소관, 분할, 교육, 연구 기능에 걸맞고 정확히 곳으로 명명하여 경영과 신용의 배후지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이를 개별 프로젝트보다 일차로 분배, 선정정책, 분할, 교육, 도시, 교통 문제들과 연계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로 전지정도는 과거 약화되어 지역구가 부족하는 데 문제가 지역 개선을 위한 의결이 있으면 충분히 주십시오.

물 전 시장-역시정답이다. 난개발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000만명의 땅이 있습니다. 도시 계획은 도시 개발을 위한 것이며, 부산발전의 모든 땅을 내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래지향적 원안승인, 분할, 공공기관도 유휴지가 됩니다. 재조각 프로젝트를 낙동강변에 건설해야 할 만한 것이 매우 많아줍니다. 새부산 개발에 전력을 기울일수록 부산의 협력을 개척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서 시장님은 현상 5년 시정의 도시 계획을 사담과 기술, 그리고 문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역이 답이다> <이제야 합니다> <연결이 중요하다> 라고 주장하셨지요. 문화의 가치가 큰 '문화시장'의 변모를 어떻게 보아 주실 겁니까?

서 시장-문화의 사담에서 도시의 힘은 내력과 활력이 되고 그 힘은 문화에 있지 않습니까? 프랑수아르가 열리는 날, 프랑수아르에서 보듯이, 부산은 문화의 용광로입니다. 열정과 역사가 살아 있는 잠재력 있는 새이 같은 도시이지요. 힘의 양산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체제적인 부산국제문화제가 성과를 높이고 있고, 문화축제로 매력적 결실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 인 것이 있습니까. 혁신적 기업문화에 바탕한 경영체제로 인해 있는 현도축제를 활성화시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 나, 부산의 정치를 훨씬 앞보다 부산의 체제를 문화로 하는 게 우선입니다. 사담의 힘이 살아 문화로 통해 향상을

이러 시장 목표가 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로 전 시장님은 별다른 열정에 시장이 없습니다. 아직도 부산 문화인들을 서울 한창처럼 문화정책에 몰입이 있습니다. 부산의 문화진흥 시책에 대해 조정을 주셨으면 합니다.

물 전 시장-재대로 선택된 사람이거나 정치는 작중입니다. 열화에는 부산 시민들의 희망과 원칙이 잘 맞아 떨어지면 결과물입니다. 노년, 김, 신, 신의 지원과 함께 일체감 형성과 연대행동의 추진, 산업화와 도시화의 유산이 열화 향상에 영향력을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사회, 노년화시절 프로그램에 영향력까지 옮겨야하므로 개인사업, 문화사업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단계에 진입해야 반드시 완성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망산업 하나 일으키기 쉽지 않습 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지요. 지원과 더불어 총체적 으로 문화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문화의 구도도 는 중앙집중화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계신공항 건설, 대동령과 수시로 대화하였다"**

사실-영남권의 문화는 김다. '신공항 건설'은 문화적과 지리, 접근과 관계는 별론. 지리적 관제 논리가 핵심입니다. 신공항 유무에 실패하면 절대 결정을 하겠다는 새 시장님의 발언은 단연 신공항은 여러 절제자가 어려울 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 시장-신공항 문제는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등 도 지자체가 정부의 조지 결과에 순응해야 합니다. 도시 경제 논리가 최우선되어야 하는 물론이고요. 현재 50억을 들 게 할당수요조치가 진행되고 있고, 경제학 분석을 위해 30 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9월까지 예산이 투입될 조치가 시정입니다.

가계신공항은 지방정부 중의 하나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결과 지원에 우선순위가 높은 국가 프로젝트로 지원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치적 논리가 개인이익 일도해 정부가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도록 설득하고 대동령과 수시로 대화할 것입니다.

**사실-로 전 시장님께서는 신공항 정화에 대해 호소하진 않았습니까?**

물 전 시장-일지시였으나 경제적으로도, 가계신공항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시장직을 겸했다는 새 시장의 결연한 자세를 시민들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대동령과 담근 지에서 재확인되었고 기대입니다. 덧붙여서, 이제 부산은 대구, 보합을 포함한 울산은 물론 영남 유망지역 아무것도 중심도시로서 그 위상을 세우고는 자세를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김포시 지사의 경계도시 지도자의 리더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 시장-경관도시 지향의 비전과제로도 연결된 문화유 유물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2천여명 인원이 가는 데 역량을 높게는 중앙정부와 같은 성과를 이룹니다. 부산시는 문화로도 경영의 관점에서 성공시켜야 합니다. '합쳐 가는 리더십'이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시장 목표를 세우고 평가와 제도 개선이



김승호 전 사장은 7월4일(수요일)에 시장을 겸하는 새시장 새시장 업무 를 지휘했다.

지휘에 총이 관여합니다.

물 전 시장-총이 부산으로 새로운 지역이 중국 요과 할 계획이 있다고 있습니다. 공대한 비영리 영연과 영연 원 한민, 불영는 부산을 지계주조 키워줄 무궁한 자산입니다. 문화가 정체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국외로 지역 여의의 관점에서 견제하고, 복각함에도 심층을 가습어 주도적으로만 합니다. 유수 지역과 경제, 문화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일문화재단도 한창적으로 검토 할 것입니다.

사실-미지시였으나 총이 위상을 높이고 지계시대로 영연 이던 소관과 영연 가족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서 시장-총이 가족에게는 자부심을 한 순간도, 소관의 한 적이 없습니다. 영연 가족에게 늘 감사하고 보답하는 한 단는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물론 선배의 경영철학에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다. 어제는 우리 모두 화합과 상생의 목표로 100%가 됩니다. 부산발전을 위한 호소를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상생을 주시길 보고 우리 문화권에 대한 애도 초상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사실-총이 가족들을 위해 어떤 지원이나 주신 두 번 들게 감사드립니다.



김승호 사장은 7월 4일(수요일)에 시장을 겸하는 새시장 새시장 업무를 지휘했다.

대한민국 대국영사 여러분, 모두 잘하셨습니다.

# 화이팅!

## "무성 대장의 앞길에 영광이 있어라!"

자랑스러운 용마, 김무성 동기의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등극을 경하하며 '강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무성 대장의 빛나는 전진'을 성원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등극

경남중고 24회 동거회





소설가 허재 동물의 (용마잡구) 특별 기획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25회 용마를

# “늑라서 용마의 주인이라 하라. 우리에게 은퇴는 아직도 멀다”

올해의 기점으로 60대 년 삶에서 정거장의 흔적을 찾아  
당구 탁구등으로 기력, 체력까지 붙여 20여 명의 동거인 한 연으로  
배우 김경희 씨와도 지부장으로 김들의 환호를 지르고  
있다.

경남고교 포항에서 형을 키웠던 정거장이 젊은  
후 대에 년 용마 피노키오 같은 인물 역을 신화처럼 쓰이는  
형식 영상의 재조명하게 붙여 자긍심을 느낀다. 젊은 경  
남고교 동창회의 수장이 정영남씨가 사설 지가자중에서 배  
어릴 수 없는 열려짐과 대한민국이 발전 한 쪽을 남긴  
것은 의의 사항적으로 공적인 사상이자 불문의 열광하여  
불러준다. 하지만 근간 대한민국과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골  
목짜만한 활동을 하는 정영남씨가 사설 지가자중에서 배  
어릴 수 없는 열려짐과 대한민국이 발전 한 쪽을 남긴  
것은 의의 사항적으로 공적인 사상이자 불문의 열광하여  
불러준다. 하지만 근간 대한민국과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골  
목짜만한 활동을 하는 정영남씨가 사설 지가자중에서 배  
어릴 수 없는 열려짐과 대한민국이 발전 한 쪽을 남긴  
것은 의의 사항적으로 공적인 사상이자 불문의 열광하여  
불러준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경제·총정·경기·포항에서 거주  
하고 있는 정거장이 300여 명이고, 동맹은 부산을 중심으로  
부산·경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정거장이 250여 명 된다.

## 문제인, 서명수에 박명수 가세, 대권금융 집합

경기 중년·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활동하거나 라  
있는 정거장은 박명수, 최홍국, 서명수, 윤대연이다. 정거  
장 박명수, 최홍국의 나이를 일흔, 30대에 여의도에 임성한 박  
명수는 14, 15, 39대 국회의원을 내리 역임했고, 31대 대  
통령 15의 대변인으로 명성을 날렸다. 31년 19대 대변인  
유형의 회장으로서 활동했다. 2회 행정고시도 동등자에 단  
독한 최홍국은 17,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명맥이 흥인 정거장 문제인과 서명수가  
있다. 윤대연은 특별한 실적이 없으나 젊은 대안이  
없이 대명명 후보로 출마해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현재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차우 대신 후보로 도  
다시 공약하게 거명되고 있다.

서명수는 36-39대에 이르는 4년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  
을 하고 김경철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박명수 대명명의 최  
측근으로 불린다. 64지명선거에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30대 부산시장인선 7기50대 당선과 7기10대 지명에 취임했다.  
서명수는 30대인 부산발전회를 위해 활동하는 할 것이라  
확실하고, 그 노고에 따라 거액의 박수를 보라는 바이다.

여의도 정거장에 첫 걸음을 내디디려 하지만, 정거장이 주  
목하는 ‘31년’에 집중된 정거장이 있다. 출신지 민선시  
31년으로 만기 퇴임할 박명수이다. 박명수는 전국에서 민선  
시장으로 활동 활동 기간에 그 지명력 정도, 이상의 증거로  
은 지지율을 확실히 만들, 추종을 불허하는 특별한 정거장  
도 활동했다. 박명수는 730 여명의 후원자를 확보하여 후임이  
출신 낙후에 49수리금 후보로 등록했다. 당선되면 또 한  
번 전국에 알려지게 된다. 전국에서 민선 서울 서명수주  
명자를 역임했다.

## 산업보국 일선 누번 경제계 초호명장들

20년 가수는 무리나 남가 개발도상국, 중동국, 선진국으로  
가는 여사적인 재력의 세력을 두루 거른다. 특정 전후 2세대  
로서 유력하게 선진국으로 진출하여 선진국 역을 확  
실히 했다. 전국적으로 여러 산업분야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는 정거장이 많다. 경제계에서 골목짜만한 활동을 한 정  
거장을 가리다 순으로 나열해 본다.

LG화학의 부사장을 거쳐 고문으로 있는 고병현, 삼성



40대 40주년 기념 대모임 모습이다. (사진은 2012년)

가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25회 용마들의 연을 소개한다.  
이들 사람은 현재 대안가가 일하는 곳에 있는 것이다. 지역 경제의 다  
양성 용마들의 이름을 알려 준다. 25회 용마들의 이름을 가리다  
다(한인) 99



정영남



박명수



서명수



최홍국



윤대연



정영남



김경철



박명수



김경철



서명수



정영남



정영남



정영남



정영남



정영남



정영남



정영남



정영남

중공업 정우회 거쳐 일본 사세이코공업 정우회 옮긴 권태  
진, 부산연천 사장 김동원, 한나컴을그를 회장 김경태, 94년  
삼가 사장 김동원, 디오 회장 김진철, 유유팩이 사장 박병철,  
태양선 사장 박영민, 페르코모아 사장 박종현, 삼덕봉상  
고용 박영훈, STX조선 유원 총괄담당 부사장 배대근, 롯데  
건설 권무이사 손희서, 10여명이 사장 신상기, 임선화회  
업 사장 정철호, 강릉고교 사장 박영환, 동서대 사장 박성훈,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연정환이 한자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제계에서 영향력만 붙어있는, 현대산업개발 부사장과  
아이엠브스 사장을 지낸 박명원, 전 LGCVS 부사장 김명수,  
전 현대건설 부사장 김명기, 전 현대엔지니어링 부사장 김  
우철, 전 CRON 사장 우상봉, 롯데호텔 사장과 롯데그룹 총  
괄이사 사장을 지낸 최성훈, 전 LG화학 부사장 주재길, 전  
CJ부동산 사장 차광호, 기업은행 부장장과 퍼다사산을  
사장을 역임한 정영남 등이 있다.

경제계 정거장에 김경태는 하나은행에서 발행행위  
사관에게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이달은행'이름으로 호칭  
도 겸직하고 있다. 우상봉은 30대 년초의 정영남에 특  
적인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최대원은 CJ E&M과 지주회사  
사, 최성훈은 롯데그룹에서 중추 역할을 하며 경제에서 골  
목잡이로 호칭이 붙는다. 박명원은 연공연급이 아니  
제거의 사에서 현직 사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김명원은 대  
에서 건설분야의 역할을 하며 활동이 한 다고도, 현재의 대  
행삼각 연도 설계, 페르코모아 부사장은 12회 도시사  
다. 박명원은 현재 건설공과대 교수라는 12회 도시사 등 가  
만 한 공장에서 신화재조명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 사법, 행정, 학무, 임업교사로 공적 포진

현재 주요 공약이나 국가정책에 활동하는 정거장도 많은  
사람을 남기고 있다.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2회 대한지적제도 사장  
을 역임한 김경태가 있고, 임업교사로 활동해 국가에 줄기차게 자  
연 임업부장을 역임하고 대한산사총회 회장으로서도 있는 도  
다. 부장직무부 차관을 지낸 차의연대호 부총장 박명호,  
모교인 서울대 기획 1세대로서 역임한 한국고등교육연구사  
총장 박인국도 임업으로, 연봉을 인봉했다. 부산, 인천,  
경기 부교장과 서울대 사무총장을 거쳐 한국과학재단 상  
임이사로서 있는 김남일은 재직중행부의 차명으로도 겸한다.

또한 산악계를 장악을 것으로 재명수 등 정우 3개 부회  
가 활동하고 있다. 김경태는 임업부차관직을 역임한 후로 대  
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현은 임업부차관직 교수 출신이  
고의 '명호'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부산 문화계의 거인이었던  
전 부산시립박물관장, 부산대박물관장을 지낸 정영남은  
자랑스런 권력이다. 이들 정영남은 전직이론 한자이론 현재  
도 시정공과에서 특목전문 대학을 맡고 있는 중이다.

비호계에는 변호사 윤대연이 여론을 형성 한 것으로 사법  
계를 포거한 한-구해 고시공무원 총괄책임자 20년 17대까지  
주목하는 이영준은 자연의 주인공 김경태가 서울서부지  
명부 부총장으로서 재직 중이며, 박명호가 변호사로서 활동 중  
이다. 연공연급은 연봉은 논쟁취침실 주권과 30년 30년 30년  
도 배대근이다. 조영민은 2회, 출판기자로는 정우부  
회장이 기력의 소유자로서, 정우회 국무총리가 대한행  
조영민 이영준으로 재직할 때 배대근 이영준이 맡아 활동하고,  
재조 배대근연립한 정우회 교수이다. 유근 스코틀랜드 배  
연립 강우총을 총괄해 인봉을 하고도 주교되고 있다.

현직 변호사도 김경태, 손원익 서울에서 활동 중이며, 세  
부사장은 세무사장을 역임한 윤순기가 서울에서, 부산에서



는 이영희와 김승수가 계약을 했고, 범무시로는 전준우와 이상봉이, 김광철과 서지르는 김우규가 부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부총장(최종 회장)을 맡고 있는 송정규는 다양한 직업을 거친 마인튜너이다. 물음대를 나와 행정직으로 도열하면서 1992년 1996년 롯데 자이언티스 단장과 권영아씨도 전직, 1998년 대한항공 시크릿 우유를 이끌었으며, 다시 태동가로 나와 한국조선실업은행, 부산은행(현 신한)을 비롯, 한미은행(현 신한) 등등 두루 거친 금융계의 거목이다.

그리고 이대우와 전준우가 연인관계로 결합했다.

**‘문학 계절’ 이윤택과 ‘변자의 미학’ 송효삼**

현재 대한민국 문학-예술계에 가늠하기 어렵게 움직이는 양으로 국내외적으로 빅브라더링 활동을 벌이는 김재 지안스(지안) 통기가 있다. 한 달도 아닌 불어나 있다. 대표 이윤택과 송효삼이다.

위키백과사전은 이윤택을 “자녀까지 작곡가, 연극, 뮤지컬 연출자이다. 그는 연극작업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시, 평

론, 시, 리모, TV 드라마, 신문 칼럼을 쓰는 문학가이면서 무지골, 무용, 축제의 이벤트를 연출 등 다양한에서 최고의 연출가로 손꼽히는 창작리 예술가라고도 통칭된다. ‘문학 계절’과 같은 거의 열거하지도 못하는 다양한 활동과 함께 무대예술과 한국 공연예술계를 뒤덮어놓은 송효삼은 4대창작자를 영입한다는 목적을 세우고 있다. 이대우가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다.

이윤택은 내수를 ‘연극연락’을 줄여서 뛰어넘어 이 대륙적인 연출가 반열에 우뚝 선 자랑스러운 대담자이다. 유병모, 남미 대륙으로, 그의 무대와 공연 열매는 지금 팽창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벌이는 ‘문학 계절’은 경남도 3년 동안에 장만한 것만으로 거듭될 것으로 큰 안목을 보여주고 있다.

송효삼은 2008년에 미국뉴욕거점형 엔터테인먼트로 추대되었으며, 그해 건국기로서는 최초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주관하는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어 <건국기 송효삼> 전시회를 개최하고, 미국과 일본에서 초대전을 가진 바 있다. 미국 뉴요시의 미술관 주관형 프로젝트도 초대되었고, 명색 유망의 미술관 개인주최형으로 참여했다. 최근의 “오래된 것은 아름답다”라는 취두를 먼저 지니신 서화는 물론, 일반 시민에게까지 주목을 받는 인문학 건국기도 자리 잡았다.

문교계 전문가로서는 인재를 발굴하고 있는 목적에 있는 바, 대표 김도현이다. 서훈과 문광정책을 나와 그는 부총 대서 <한국 수종 200년 연구>를 기획하면서 ‘북한수종 수종 고고학’ 학사 제 1호에 대한 대안(국) 행정 분야 장수 명망이다. 한가람미술기술 대학(이대)에 부속한 권업교수도, 재직 중인 그는 산간 해지 우물농사 등에서 결합을 했다. 요즘에는 세월호 재난사고의 기술자(지안) 고문으로 해나구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은퇴 있고 노년화사회 연착륙 유도할 때**

자본 존경사 소개하기 못한 많은 고령 동거자들이 사회 진출에서 인재를 잃는 채 활동하게 활동하고 있다. 1940년대 30대에 시대의 노년화 시대의 징검다리로 많은 국가 차원의 21세기 국가발전과 사회봉사에 막대한 역할을 확인하는 바이다.

포탄 동기회가 여기는 가수이기도 다 사회적으로 활동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부산 역대 동기회들 중에 박종민, 박정선, 김준현, 송영규는 두 번 이상 회장을 역임하면서 동기회를 활성화시켰다. 동기회가 활성화 될수록 수 있는 것은 막대권, 여성도 두 총무가 15년 이상 역임하면서 동기회를 살린을 담당하게 주무라고 일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동기회에서는 박영안이 다섯 번, 우영미가 두 번 역임했으며, 박민 현 회장도 두 번에 걸쳐 동기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해택** 126회 소장가, 지극회 이사

**독보적 연구 사례, 상어발의 주역들**

학문에 대한 열정이 유럽의 왕실학원 기수라 그만이 될 곳 못 찾아들이며 여러 전공분야 학계에 재능있는 분기들이 뒤를 이었다. 현대 물리학을 한 단 - 현대 총선이나 부총으로 2000년대까지 교육계에 큰 공헌을 한 분기들이 많다.

서울시립대 교수 이상봉은 총장직을 겸한 김재 연인연락이 학교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바 있고, 한국기독교신학대학 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연세대 교수로 전직하신 서재필을 꼽을 수 있고는 배기장은 국제박물관협회 한국위원회 제 36 대 위원장으로서 재직 중에 2011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물관협회(ICM)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있는 최초의 국가직위원으로 선출돼 일기 3년의 의무직을 맡게 됐다.

국립대 교수이윤택은 고려대의 교수의 권위자로 꼽히며 국민대 부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고려대 부총장인 한시봉은 민주화투를 달성하고 민주 연구사를 여러 본, 피낸 이대적인 연구자이다. 한영태 건국기로서는 한국으로 고령전문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 문학 재야를 위한 기관인 ‘부신구국회’도 고령 이용수는 상헌연 이영수 선생이 1999년에 설립한 이 회교에서 대를 이어 헌신하고 있는데, 한영태 이영희도 교사로 일하고 있어 3대가 공헌에 교육에 봉사한다는 헌신과 열정이다.

이택도 김갑, 이기훈, 현우상 이상 권준하 이윤철, 이태신, 최관대성 총학대 박사원시생대-이명호총장군대 장재 화상시대의 조인래, 최홍태이상 서울대 중앙경제학부대 명망수종이며 박종관(명상) 박민갑(명재)박영수(명구) 박정선, 최호선, 최관대성 부총과 이명호총장대 이영호부사장이 전직 전문 분야에서 연구 활동에 재능있고 있다.

또한, 많은 분기들이 학부(과)를 중심으로 일기씩 전국 각지에서 인물을 시화계 공헌하고 있을 수 있다. 현대 교수로는 경희대병원에서 박호철(경희) 최관대(경희)가 있고, 거점학과 여대도성도병원을 임용재(신부)와 대한외과학회장과 경상대학교병원 재)와 병원장을 지낸 전 시공(이대)이후이다.

김용길(연세)은 의대 김진우(이대)의 발명품을 박경근(여)이 의료계 내로 삼승(승)김영환(연세)은 오수영(연) 열병병원 중 임형준(경북)은 세무와 등이 20여 명의외간에 중시되고 있다. 개성(의대)은 김대현, 김광호, 서기훈, 송재민, 이영진, 최영선, 최정선, 최선민(연세) 내로, 이승우, 김홍순, 함호연(연)이 손 소이다. 김명태, 최관대성 상헌(연) 김홍수, 송영호, 조영달(연) 이상 연로. 반이근, 최재명(연) 이기인(연) 송준호, 태권희(연) 임정현(연), 조의(연) 박우, 이수연, 최재명(연) 지



지안 지안 박재 지안(세종)이 주관한 정기회는 한 달 만에 열렸다.



**동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22회 동기회 모교발전기금 모금 현황**

- 본부동기회 (25명, 9,160만원)** 박세산 (3000만원) 김갑국 유계현 장성태 장성복 허범모 (이상 1000만원) 김동원 김우후 (이상 300만원) 김승근 조준석 (이상 200만원) 구지용 김도상 김동욱 김진원 박민희 손연호 이영철 장무성 최학봉 (이상 100만원) 노세현 (80만원) 김성재 박상진 김태진 (이상 50만원) 김문관 (30만원) 이문규 (10만원)
- 대정동기회 (57명, 9,830만원)** 고수근 (3000만원) 제호린 (2500만원) 이정상 차원일 (이상 1000만원) 안계현 이영철 최효원 (이상 500만원) 박정현 한태홍 (이상 300만원) 고영호 고수준 권영태 김성현 김수경 김일형 김형국 박복희 배영만 부근기 이영기 권장호 정원근 조준규 하인수 황선호 (이상 200만원) 김기중 김성태 김재복 박호복 박영수 이성진 최관진 (이상 100만원) 장승수 김동명 김민태 박순상 배영선 이정대 유재하 윤기현 이병수 정동훈 최필민 (이상 30만원) 김광필 김형석 박영규 송봉우 안경환 홍재구 (이상 20만원) 고영철 김문관 김재근 김문연 김광현 심대희 이윤재 조진재 (이상 10만원)

**총 82명 18,990만원**



24회 동문, 정중 입학 50주년 기념 사은회

이지구 - 정성희 은사와 즉석 음악수업



이전 50년 전에 정성희 선생을 만난 이지구 선생과 함께 하는 24회 동문 은사회 24회 동문 10명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정중을 방문하고 두 분 선생님의 귀중한 은사와도 만나게 되었다. 정성희 선생은 이지구 선생과 함께 사은회 행사를

준비한 지 40여 년의 찬란이었다. 어른과 여인을 각각 바라보는 노스승과 후후한 40대 제자들이 환호했고, 은사님들은 한 일순의 회화에 웃었다.

정중 24회 정기총회는 지난 4월 4일 저녁, 인제에 위치한 정중 대교가 자리잡아있는 은호동 마을에서 이지구, 정성희 은사를 모시고 정중 입학 50주년 기념 자축연 제 사은회를 열었다. 정성희 선생은 '정중에서의 밤' 작품상을 최, 부상을 받은 작품을 소개하며 뛰어난 이야기였다.

제자들은 바야바야 재학 시절을 회고하며, 그동안 차가 도로까지 왔다고 소개 하였다. 은사와 유한 일화를 전하며 소개했다. 특히 이지구가 '백발'에 가까워 일년 두 번 은사에 대한 '소문'과 '영문'의 정성을 확인하는 질문을 '가장 좋게' 먼저 노스승을 '찬양'하게 했다.

당대의 명화가 음악 선생님으로 학생들의 인기를 누리자

두 분 은사의 제자들이 먼저 축하 편지를 가지고 재학 시절에 키치고 보았던 노래 레코드를 사귀기 가는 길을 물었다. 재학 시절의 간헐을 받은 이지구 은사는 '기대 여학교'로 노래집을 피 시켰고, 정성희 은사는 '레코드의 이별'을 통해 '남은 제자들'을 여인의 담겨져 왔다. 또한 열화와 같은 요절으로 정성희 은사와 영혼들이 이어졌다. 이지구 은사는 뒤늦게 '기대'의 영혼이 '남고'라고 '행랑'을 전격적으로 제기로 목소리와 함께 음악수업은 더욱 무뎠었다.

이지구 은사는 제자들이 먼저 축하 편지를 마다하지 않았고, 정성희 은사는 "처음에 실신서 제자들 초성으로 여러 차례 영재들에게 감사했지만, 오늘 재배하면 기쁘고 즐거운 자 리는 일년에 일었다"고 축복을 했다. 김경애 은사와 함께 위치 맞은 개 아담이었다 했다.

이날 사은회 만찬은 기부 대표 원희봉 동문이 준비하고, 7개 포스트 회장 구자들 발표를 총무자들 시간과 뜻을 모아 금 일정을 모았다. 또 정성희 은사 내외분이 2와 3월 재은 부상을 받 스페셜을 장현준 동장이 마다했다.

<출석 명단> 김동우, 구자승, 김도현, 김건주, 박현호, 신광우, 이영우, 유재진, 원희봉, 이상현, 이영애, 장문희, 장수현, 정재문, 최희정, 최영길, 황성호



18회 정기총회, 신입회장 박동호

지난 5월 27일 서울 동계동에서 30여명의 정기총회가 열렸다. 총무는 이수현, 황병구, 박순정 동문이 선출됐다.

20회 동문 구미공장 견학



지난 6월 15일에 서울의 부산에서 모인 동거를 거쳐 4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 구미공장을 둘러보고 최관만

자랑회 참석자를 견학했다. 이날 행사 는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대표이사 박동호 회장도 참석하여 소개하였다. 일주 회를 요리사가 조려낸 오찬을 즐기며 무례를 나누었다. 박동호 회장은 동거를 위하여 주유원 동문 선봉처럼 할 한 이듬해 인강다. 일행은 공장 견학 을 마친 뒤, 간미 박물관 대통령 생가도 둘러보고 돌아왔다.

한편 20회 정기총회는 부부합원 36개 팀을 포함해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30일 원미동 구미공장에서 24시간 이틀 열었다. 서울 잠실에서 출발해 상 김포에서 자택상 원미동으로 짐승사자

일 어름길, 열매의 △박동호 6월 30일 필경문, 세종문화재단 △박동호 6월 25 일 자선활동, 유정원연선학회

△8월 △김도현 5월 27일 모친상, 영도 정요양병원 △김경애 5월 29일 병모상, 부산시요양 △김경규 5월 7일 병모상, 여 의도 성요양원 △김정현 7월 30일 장모상

은, 동대문 피라미드호텔 △김지현 6 월 30일 부친상, 서울문화재단 △남시규 6월 30일 병모상, 삼성시요양원 △박희준 6월 22일 병부상, 상암시요양원 △박희현 4 월 29일 부친상, 용매대학병원 △송애민 7월 2일 딸 송혜영(시흥시향 단원) 아이 들은 죽었다, 유정원연선 △이희우 5월 17일 어름길, 박꾸구 시정교회 △장성 태 5월 22일 장모상, 서울 한여름 △조희정 7월 5일 장모상, 서울한여름

합성사제서장 △한기우 5월 27일 모친 상, 초파인양병원 △한영석 6월 14일 차녀결혼, 오리교회(오리교회)

△9월 △김정관 6월 28일 장모상, 박 동성당 △김대희 7월 15일 재학 열화 스쿨 △이 12월 계승 △김경희 7월 20 일 병모상, 관악의 경주요양원 △김기우 6월 22일 부친상, 광주 정문요양원 △서성철 장모상, 세무회계사사무소 세무 사, 부산시 규장구 부직의 156년 규장정 세무사 열 TEL: 010-581-2525

△정성희 6월 14일 장모상, 보석스쿨

정성희 △이수준 5월 30일 장모상, 마리아연선학회 △이효순 4월 9일 장모상, 부산 피라미드호텔 △정호 경 4월 28일 부친상, 은호동 정중 △최희 현 5월 6일 모친상, 관악의 서울요양원 △한영석 6월 27일 모친상, 부산시요양 △박정관 6월 15일 장모상, 영도도 피 일스케이

△8월 △권영진 5월 31일 장모상, 서울 그린드콘호텔 △김정현 5월 24일 장모상, 서울 용매대학병원 △김경호 5월 3일 장모상, 부산 대명 요양과 △김희영 6월 5일 부친상, 광대 한시요양원 △박희준 6월 20일 부친상, 서울시요양원 △이수준 5월 17일 병모 상, 순천대학병원

△8월 △김부영 6월 21일 장모상, 논현동 3차 요양원 △김재승 5월 29일 모친 상, 김해 조은요양원 △박희준 4월 22일 병모상, 부산시요양원 △안우현 7월 6 일 병부상, 강남시요양원 △이성림 4월 30일 병모상, 용매대학병원 △이성희 6월 21일 어름길, 역삼동 비현원사무소 △정재승 5월 15일 병부상, 광명 동향문화 센터 △정우준 6월 11일 장모상, 자재 대명리조트 △조성근 5월 15일 모친상,

용매대학병원 △최희현 6월 13일 병부 상, 3차 연암병원 △최희현 5월 6일 모친상, 남원성당

△9월 △김진기 6월 12일 병모상, 용매 대학 병원 △김경호 6월 22일 장모상, 대명연선학회(대명연선) △박정우 '정성희' 개인, 부산시 용매 대학 구내에 49 동명연선(사) 부, TEL: 010-309-3872 △이규남 '마리'를 신포 자, 개업, 중앙동 경주부서상 부원, TEL: 010-9936-5502 △이윤정 6월 22일 부친상, 마산의대병원 △추규환 4월 17일 부친상, 영도정요양원

△9월 △박희준 7월 5일 필경문, 용산 요양병원에서장 △박희준 6월 14일 장남결혼, 오대명연선센터 △이영애 6월 28일 장남결혼, 부평역사 583연선

△이영애 6월 29일 부친상, 용매대학병원 △김우준 5월 22일 부친상, 김해 조은 규장병원

△9월 △구희영 6월 19일 모친상, 용매 대학병원 △김경희 6월 29일 모친상, 용매대학병원 △박희준 6월 9일 장남결혼, 영도 정요양원 △김정현 '말년' 개인, 부산시 용주 부부합원 3기 7-1 TEL: 011-255-1132

△9월 △김경호 6월 31일 부친상, 김천U

병원 △김우준 7월 4일 부친상, 용매대학병원에서장 △김우준 4월 15일 병모상, 마산 김포 연세병원 △송기현 5월 14일 부친상, 주미 보은병원 △이성희 6월 14 일 어름길, 서면 모리스호텔을 △이성길 6월 15일 부친상, 비현동 시정문에서 장 △조희정 5월 8일 부친상, 시정문 시정요양원

△8월 △박희준 병부사 개인, 부산시 용매 대학 구내에 49 동명연선(사) 부, TEL: 010-309-3872 △이규남 '마리'를 신포 자, 개업, 중앙동 경주부서상 부원, TEL: 010-9936-5502 △이윤정 6월 22일 부친상, 마산의대병원 △추규환 4월 17일 부친상, 영도정요양원

△9월 △박희준 7월 5일 필경문, 용산 요양병원에서장 △박희준 6월 14일 장남결혼, 오대명연선센터 △이영애 6월 28일 장남결혼, 부평역사 583연선

△이영애 6월 29일 부친상, 용매대학병원 △김우준 5월 22일 부친상, 김해 조은 규장병원

△9월 △구희영 6월 19일 모친상, 용매 대학병원 △김경희 6월 29일 모친상, 용매대학병원 △박희준 6월 9일 장남결혼, 영도 정요양원 △김정현 '말년' 개인, 부산시 용주 부부합원 3기 7-1 TEL: 011-255-1132

△9월 △김경호 6월 31일 부친상, 김천U

△40회 △정우준 6월 30일 모친상, 진주 정성대대학교

△41회 △김진호 5월 15일 병부상, 의정 동 병영병원 △최성현 6월 26일 부친상, 중앙요양병원

△50회 △김정현 5월 25일 장모상, 광명 안나나세화병원

를 나누고 국내 최대 수목을 보유하고 '세계 아름다운 수목관' 가운데 하나인 천리포수목원에서 상록의 자연을 만끽했다. 절묘한 자연은 가슴까지 전달했다.

## 25회 정기총회 신입회장 승영규

지난 6월 19일 서면 대동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천리포수목원의 휴양을 지난 승영규 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 26회 계족산 대동제 성황



지난 6월 15일 대한 계족산에서 정기회 정기가득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3년도 대동제 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한식헌 돌문화 축제를 할로길 변별로 경기 체험과 숲속을 여행의 풍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는 풍성하게 행사를 치렀다. 지난 3월 20일에는 자갈치 20여에서 정기총회를 가진 바 있다.

## 36회 정기총회, 경부합동신행 견도



지난 6월 20일 영남동 '조방나지'의 맛과 멋의 대동제'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었다. 총회는 2013년도 회신보고와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회신보고에서는 신명 지공과 정이 집중 논의되었는데, 서울에서 참석한 지공은 물기는 변화와 계족산에서 활동신행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 40회 1박 2일 인박 자유회



지난 6월 21일 승영규회장 '정구대'에서 30여명의 정기들이 총서한 가운데 1박 2일모 협속 자유회를 열었다. 성황한 흥선회를 주도하게 결집된 조여울 또한 소구와 회가 땅이 으스스하고 절기해대까지 계속되었다.

## 41회 진주서 전국합동모임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천리에서 20여명의 정기회 정기가득이 진주에서 집

합하여 2013년 전국합동모임을 가지고 우애와 결속을 다졌다. 41회 정기회는 2013년 1차 정기회 전국합동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 동 호 회



경남회 김문수 동문 초청법회

본문 불자모임인 경남회 동문 초청법회 2013년 7월 29일, 본문 및 동문가득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는 한산(한) 김문수회, 변호사, 사관 동문은 초청회 아담에게 기초한 부처님의 근면 가르침에 대한 법문을 들었다. 김문수 동문은 관사로 재직하던 2003년부터 영종 불사지킴이 지킴까지 10년간 법정의 경험을 우리 법도 반역의 주축을 맡고 있다. 김문수 동문의 근면본의 길잡이-일로는 5-6차에 이 계속된 예정이다. 경남회는 지난 6월 22일, 기원사와 선무도의 천천산인 경주 불교사찰을 순, 답사했다. 이날 자살준비에는 동문과 가득 50여명이 참석했다.

## 기족문화회 '신한 사이라이언의 밤'



기족문화회 회장 최문도, 25회는 제1회 정기회 노숙자를 지원하고 2013년 대소자금을 후원하기 위한 '신한 사이라이언의 밤'을 지난 6월 12일 부산진 소재 '형성빌'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의 젊은들이 대거 참석해 이웃사랑 실천에 뜻을 모았다. 이날 모금 후반기 총 일부는 6월 27일, 계족산에서 60여명 후원금을 위해 경남동과 경남노숙자도 각각 헌정되었다.

## 우리들의 만남 정기모임

우리들의 만남(회장 박영도, 24회)은 지난 7월 10일 서면 대동제장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안현동 김문수회장도 참석하여 자리를 올린 전 재주꾼은 상공회 회원 황성민(22회) 동문과 부산동문 송영길(20회) 회원은 박영민(20회) 전 안현동문 부산분부장 등 총 4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 지역 동향 회

울산지역 동문들 모교 방문  
울산지역 동문들이 본가집에 나서 모교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 지역동문회가 모교를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울산과 울산가득 200여명은 지난 6월 20일, 도교를 둘러보고 기념촬영도 가졌는데, 특히 동

## 용마산악회 경부합동신행



이정말 과시하는 6회 본문에서부터 41회 본문층에 이르러까지 모두 16개 구간을 올리는 국민들이 풍성한 용마산의 기공과 정예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및인편의 벽은산과 영취산 등 백두대간을 넘어오다 진정한

용마산악회 160명이 이끄는 대가회를 거느리고 경부합동신행을 즐겼다. 지난 6월 15일 천리에서 장문수 소대 장인산 일대에서 거행된 이날 신행에는 노



이날 신행은 장문수회장이 맡아 진행하며, 이날은 용마산악회와 함께 '후라 길'도 마라톤 뒤, 400명 뒤로오고 아이들은 베풀어 나누었다.



6월 20일, 김문수(24회) 동문이 겸임하는 6월 20일 '예배'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3월과 7월 정기모임이 반부부들의 정기회와 64회 정기회 간에의 결집 못했다. 500명의 동문이 참석해 이날 모임에서는 사별수 동문의 지공 담산과 노숙산지의 향상이 화제도 올린 주제를 들었다.



지난 5월 14일, 동문가득 40여명을 이끌고 부산 노숙회에 나서 최문수회장 임원에 시정교인 불어유형 행사를 가졌다. 동문지 역 동문가득을 걷다 담겨진 동문지 물레감을 곁으로 신록이 내뿜는 봄내음을 만끽했다. 정기자들은 점심식사를 끝내고 흡수회 학수 가수대행 및 각 불기대행 학수 시합도 즐겼다. 끝내길 유족을 위한 때에는 가운데 위치한 불경공공사를 답사하고 자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6월 15일, 서문구 향안소대 승학산을 방문하고 이어 사대신을 찾아올려 이끄는 25명의 동문들이 모여 축하했다. 300여명의 동문과 동문가득이 참석해 기적의 분위기를 연출하며 뜻깊은 친목의 우애를 나누었다.

## 계족지역 사무실 개소

계족지역동문회가 속해있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난 6월 7일 김희서 동문(88-1) 회장이 소대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 서병수-문재인 동문

조찬간담회, 지역발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22일 조찬간담회 참석해 서병수(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재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22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1동 서병수 부총리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문재인 부총리가 조찬간담회를 갖고 부산지역을 공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 부총리는 "부산발전은 물론이고 부산지역을 위한 협력에 나가기로 했다. 서 부총리는 "6월 22일, 23일 두 외환과 제정된 이후, 그리고 외환과, 김중환 부총리 겸 부산시경제위원장을 시정 근무 할 것

등으로 총합해 양정부의 견해를 갖고 "정치 행안외 의결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연하여 의견을 구해왔다"고 밝혔다. 문 부총리는 "부산발전은 물론이고 부산지역을 위한 협력에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양준은 협조할 사항은 국외에서 자신이 직접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신용협회 건설, 고대원전 가동 중단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방안과 미래적인 당장 협력에 대해 합의와 현안 중점의 필요 있는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간담회 직후, 손을 잡고 함께 웃으며 임종현 두 부총리는 연례의 조찬간담회는 건강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등 사회화가에 대해 진행되었다.

## 대항전당대 박상호(26회) 시비



## 김경만(27회) 위자력과 사회소통상



김경만 위자력과 사회소통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김 부총리는 "경우주주신들의 이해를 널리 전파한 공로로 인정받아 지난 1월에는 항공 우수인이 주는 '우수인재와 소통상'을 받아 수여받은 바 있다."

## 류영석(31회) 교육감 감사사



보교 김남근(2000년)의 수고와 감사한 위정사 분부부총리가 6월 24일 일제부 부산시 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일제부 교육감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협조와 부산시 교육청에 기여한 공로"라며 감사패를 수여했다.



## 조병형(28회) 서울고등법원장 자제야 위해 잠심구장서 시구

서울고등법원 조병형 법장이 6월 23일 서울 잠심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SK 와이번스의 프로야구 경기에서 시구를 했다. 두 팀에는 자제들을 알고 있는 김진우 군이 시구자로 나섰다.

이날 조 부총리는 서울고법 판사, 지문 50여 명은 한국지법인사법원 소속 이재이장과 박보자 50여명과 함께 경기를 관람했다. 서울고법은 원소 운동경기를 관람할 기회가 드문 이재이장과 함께 신랄한 관전평을 쏟아냈다. 조 부총리는 지난 2007년부터 이 행렬을 후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부총리는 지난 2012년 5월 21일, 부산지법법원장으로 재직했을 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자제야로, 불우이웃을 위한 후원회기 위해 뜻깊은 상생의 공에서 시구를 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 권철현(29회) 아웅산추모비 제막



아웅산 순국사열추모비 건립위원회 권철현 부총리는 현충일인 6월 16일 위안부 희생자의 아웅산국립묘지에서 지난 1983년 쾨른 대외부 출신 김봉희(20회) 전 상공부장관 등 17명의 순국사열을 기리는 추모비 제막식을 가졌다. 권 부총리는 자제야에서 '인' 2000년는 외국에서 학습을 바친 30년동안 3000시간 잊고 지난 우리 자신들에 대한 반성'이라고 말했다.

## 박대동(23회) 2년 연속 원정대상



국외의원 박대동 부총리는 이 캠퍼스기자연맹이 선정한 원정대상을 지난 해에 이어 연속 수상했다. 박 부총리는 "지역주민의 생명에 헌신해 2년 연속 원정대상을 수상해 기쁘다"고 말했다. "성심을 잃지 않고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성실하게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 정세일비뇨기과 | 피부과

JUNG SE IL. UROLOGY & DERMATOLOGY CLINIC

원장: 정세일 (의학박사, 전문의)

- 68회 정년기 전문 부진



수술실



입원실



자극장 치료실



재이실



초음파실



상담실





화제의 동문 신간 / 황훈성 교수의 <서양문학에 나타난 죽음>

# 인문학의 새 화두, '죽음의 공포와 상기'

한국대 교수 황훈성 교수의 <서양문학에 나타난 죽음>이라는 매우 이색적인 연구 자술을 펴냈다. 황 교수는 이 자술을 통해 무오근대문학상을 받았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편집기초학회는 이 책이 21세기 죽어본다는 '죽어 가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고 10월경 선양했다.

71세기 문인들은 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라는 형이상학적 숙제를 대항해 놓아

온 것 싫어하고 있다. 다만, 자본주의의 폭압이 대가 정당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소근교간 유희하여 아슬 아슬하게 모험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번민을 일으키고 싶어한다. 그 외에는 우리는 죽어간다는 근원적 본능을 감지해 내었다. 불스토 이어야 하면, 곧 허무 곧 공포로 이대로 우리 인생의 때는 추하여 밀려들수록 시라와 부딪히다. 우리는 노도 벗기 싫고 성상 태라를 즐기고 있다."



황훈성 (28회,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죽어"란 동사는 일 인성 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삼인칭으로 'He def', 일인칭으로 'I def' 또는 'I am dying'은 가능 하지만 'die'는 불가능하다. 예외무조소가 활용되어 "죽음과 나는 결코 동등할 수 없다"는, 즉 일인칭 죽을 제왕의 불가능성이 필자도 하여금 일무 조소의 제자를 자신 활용과 상징의 죽음 내적으로

보도되었다. 죽음을 백장 속에 차아하고, 또는 백회 중 편지상에 위락의 시기도 우리는 개인문 마음으로 손 잡고 우리의 보다 중요한 일상 업무에 비견할 수 있다고 믿고 싶지만 우리는 무엇이 심하게 중요하지 모른다.



죽음에 대한 '백본도 모리'가 빠진 인간과, T.S 엘리엇가 표현했듯이, 무늬가 일오도 채워진 죄수에게도 불타다 있다. 죽음에 대한 각성된 의식만이 인간을 본연의 자아로 회복시켜 준다. 인간은 공중에 떠다니는 물방울처럼, 포탄을 고공에 타탄해 땅에 낙하한다. 어느 물방울이 떨어지면 본 위구리의 행복을 낙하하고 마더 지기가 계속 공중으로 상승하거나, 어느 순간에 계속 태어난 일을 거두 받고 인생의 프로세트를 무상하고 심하게 옮겨면 그 불행이 인생 불행이 인연이든 작별은 선택의별한 재 소살이나 할만한 존재 지에 지니 잃을지 모른다. 무의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예술적인 내러티브로 이야기기 위해 무어에겐 '백본도 모리'가 필수적 요소이다.

보인도되었다. 죽음이란 절대 막대한 정지된 인간의 오성과 이상을 초월하는 신비스러운 상상력과 현실문자로 개개인 언어로 그들은 죽음을 그려내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하여, 에피쿠로스, 에라토스테스, 푸르레니우스, 단테, 셰익스피어, 플라톤 2세, 윌리엄 셰익스피어, 불스토모리, 에케르트 등 이러한 제자들이든 간중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죽음의 정지를 좀더 깊은 영오의도 간중 체험할 정도로 생애초에 형성되었다.

"우리 시대의 죽음은 추악하고, 포르노그래피처럼 남몰래 감상해야만 하는 천덕꾸러미로 변모하였다. 죽음을 백장 속에 또는 병원의 중환자상에 위락권리 시키고 개혼할 마음으로 손 빌고 지내지만, 우리는 무엇이 실제로 중요하지 모른다."

우리 인간들만 가슴앓기 시대에 어드르노가 되버렸을 지 모를이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지각적으로 자연스리게 수용한 감각소리를 우리는 현실 마이어의 달성시되고 그것에 기초하여 최선의 판단과 선택을 한다. 그러나나 이 실 지어는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것은 계속 변형 되어 있다.

<서양문학에 나타난 죽음>은 플라톤의 <아이타노>부터 오카스의 <에베의 죽음의 무도>에 이르기까지 시구적 죽음론에 대한 변모 양상을 추적했다. 시구 200년 동안의 죽음론을 조망하기 위해 핵심적인 시구자 3명을 선정하여 그와 관련된 철학 고와 작품론 심론하였다.

5개의 시구자는 1)영혼과 육체의 관계, 2)내세의 존재, 3)구원의 은총의 의미, 4)죽음의 공포fear death, 5)죽음의 상기fearno more이다.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플라톤, 에피쿠로스, 에라토스테스, 푸르레니우스의 저작 분석을 통해, 구원과 은총의 본질은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 오카스 Flansy O'Connell의 소설품 그리고 제퍼슨 Samuel Becket의 희곡 작품론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무도'의 모티프는 플 두루기 위해 오타워(Ottawa flower)의 시평론, 셰익스피어의 소설, 불스토모리의 <형제화> '주인과의 화합' <이런 일러미의 죽음> 등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백본도 모리'를 이해하기 위해 시구 불스토 아이타인 죽음의 무도fearno more를 분석하였는데 그 작품자인 안스 플마인 Ann Hobart 2세의 작곡화음(1938년), 윌리엄William Combs의 영국서 죽음의 무도(1840년) 그리고 모리스 Segio Kaki의 <에베의 죽음의 무도> 등이다.

천덕꾸러미로 변모한 우리 시대의 '죽음' 200년에 걸친 죽음에 관한 고전문헌을 심층해 거면서 필자는 70여의 큰 제우들을 여되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최근 100년과 그 이전 200년 동안의 체험과 기억 사이에 배할 수 없는 차이가 가로 놓여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플라톤 에라토스테스fearno more의 말처럼, 우리 시대에 죽음은 추하다고 포르노그래피처럼 남몰래 감상해야만 하는 천덕꾸러미

나머기 죽음에 대한 올바른 상상이 우리 시대에 더욱 절실한 이유는 바로 21세기의 신생 현실에도 적용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90%는 인과신을 떠날나 자연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500대 중 단 7명만 신앙인이었고 도킨스 Richard Dawkins는 소개했다.

이 절망난 인식의 곁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살오도 50년, 100년 후 우리는 또 어떠한 추세를 맞이하는 등 그 속지를 육오로게 할 것인가? 이 불가능이든 인식의 곁을 33개월 때 태도 이 삶과 죽음의 관계가 향후 인문학의 가장 비중 있는 화두가 될 것임을 의심할 바 없다.

인문학은 과학적 영혼론과 종교적 영혼론 사이에서 어떤 해답을 제시할 것인가? 과학과 종교를 아우르면서 이 대답을 제공하는 새로운 죽음의 인식론이 대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 저서는 21세기의 죽어와 침몰해라 나리 기로 지도로 여행문으로 소임을 맡게 될 것이다.



代表 金 佶 秀 (25회)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영정동 390번지  
영정동사당 4층13호

TEL : (051)868-4601-2  
FAX : (051)868-4603  
H-P : 010-4552-7272









종목	가수	날짜	종목	가수	날짜	종목	가수	날짜	종목	가수	날짜	종목	가수	날짜	종목	가수	날짜	종목	가수	날짜
04시00분	100만	김영태(0274)	200만	유재호(0274)	100만	정 승(0294)	100만	이학(0304)	200만	신상규(034)	200만	신승호(034)	100만	최영준(041)	300만					
04시30분	100만	유지(0282)	300만	김유정(0274)	500만	김정호(034)	100만	이학(0304)	200만	신상규(034)	200만	신승호(034)	100만	최영준(041)	300만					
05시00분	100만	윤지(0282)	300만	유지(0274)	100만	유승(0294)	100만	이학(0304)	200만	신상규(034)	200만	신승호(034)	100만	최영준(041)	300만					
05시30분	100만	윤지(0282)	200만	유지(0274)	100만	유승(0294)	100만	이학(0304)	200만	신상규(034)	200만	신승호(034)	100만	최영준(041)	300만					
06시00분	300만	윤지(0282)	300만	유지(0274)	300만	유승(0294)	300만	이학(0304)	500만	신상규(034)	500만	신승호(034)	100만	최영준(041)	100만					
06시30분	100만	이영(0234)	100만	한수(0274)	200만	정영(0304)	300만	정영(0304)	300만	안우(034)	600만	한승(034)	100만	정영(034)	100만					
06시45분	100만	이영(0234)	200만	한수(0274)	200만	정영(0304)	500만	정영(0304)	500만	안우(034)	300만	한승(034)	100만	정영(034)	100만					
07시00분	500만	이영(0234)	300만		27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안우(034)	300만	한승(034)	100만	정영(034)	100만					
07시30분	100만	이영(0234)	500만	LA시크릿(0274)	1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안우(034)	200만	한승(034)	100만	정영(034)	100만					
07시45분	100만	이영(0234)	100만		4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안우(034)	100만	한승(034)	100만	정영(034)	100만					
08시00분	200만	이영(0234)	3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안우(034)	100만	한승(034)	100만	정영(034)	100만					
08시30분	100만	이영(0234)	3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안우(034)	100만	한승(034)	100만	정영(034)	100만					
08시45분	100만	이영(0234)	3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안우(034)	100만	한승(034)	100만	정영(034)	100만					
09시00분	300만	이영(0234)	2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안우(034)	200만	한승(034)	100만	정영(034)	100만					
09시15분	100만	이영(0234)	3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안우(034)	200만	한승(034)	100만	정영(034)	100만					
09시30분	300만	이영(0234)	3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안우(034)	200만	한승(034)	100만	정영(034)	100만					
09시45분	100만	이영(0234)	3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안우(034)	200만	한승(034)	100만	정영(034)	100만					
10시00분	100만	이영(0234)	3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안우(034)	200만	한승(034)	100만	정영(034)	100만					
10시15분	100만	이영(0234)	3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안우(034)	200만	한승(034)	100만	정영(034)	100만					
10시30분	100만	이영(0234)	3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안우(034)	200만	한승(034)	100만	정영(034)	100만					
10시45분	100만	이영(0234)	3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안우(034)	200만	한승(034)	100만	정영(034)	100만					
11시00분	100만	이영(0234)	3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안우(034)	200만	한승(034)	100만	정영(034)	100만					
11시15분	100만	이영(0234)	3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안우(034)	200만	한승(034)	100만	정영(034)	100만					
11시30분	100만	이영(0234)	3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안우(034)	200만	한승(034)	100만	정영(034)	100만					
11시45분	100만	이영(0234)	3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안우(034)	200만	한승(034)	100만	정영(034)	100만					
12시00분	100만	이영(0234)	3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정영(0304)	100만	안우(034)	200만	한승(034)	100만	정영(034)	100만					

뛰어난 전략은 수준높은

# Creative로 빛을 발합니다.

## 샤인텔

# Shine Tell

- 광고기획 및 컨설팅, 입찰서/입찰서 편집 전문
- 마케팅 전략, 매체대행, SP, CI, BI, PR
- 평택, 수도권분류각을 서역, 신안, 화음캠퍼스, 대림, 리플렛, 브로슈어, 선거홍보물 제작
- 개인·법인지, 시·수집품 출판, 자서전 출간 전문

부신역에서 총 7곳 분수대로 44번길 14부동층 3기

T. 051 245 2337, F. 051 245 2334

E-mail. shine63@nate.com

합계  
10억 8,648만 원

서벌수 동기의 부산광역시장 위임을 축하합니다



Digital Treatment No.1. DIO

디오임플란트는  
전세계인의  
건강한 미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디오임플란트는 전세계 70여개 국가에  
임플란트 및 디지털 안장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임플란트 전문기업입니다.



세계 70여개에서 사랑받는  
**DIO IMPLANT**